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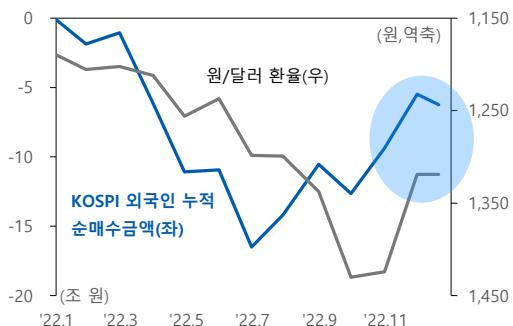


## 모멘텀 소강국면과 로테이션

### 1. 이어지는 모멘텀 소강국면

- 전일(12/6일) KOSPI 지수는 2,400pt선을 하향 이탈. 그러나 여전한 모멘텀 소강국면의 연장선상으로 판단. 물가와 달러의 피크아웃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때문
- 거래대금은 다시 감소했고, 수급이 약아지면서 일종 변동폭은 확대되는 양상
- 원/달러 환율도 주춤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지난 2개월 연속 순매수를 일부 되돌리는 모습. 모멘텀 소강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

12월 들어 쉬어가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과 KOSPI 외국인 순매수 동향



자료: Quant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 2. 업종별 로테이션 흐름

- 지수 방향성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업종별 로테이션 현상이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
- 올해 금융, 2차전지, '태조이방원', 기계/건설/철강 등 경기민감 업종, 그리고 최근 호텔/레저, 화장품, 유통 등으로 긍정적 흐름이 이동
-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주가 부담은 덜한 업종들이 로테이션 국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의 KOSPI 매도우위 흐름에도 순매수는 이어지고, 주가 부담은 덜한 업종들(12/6일 기준)

업종	12월 외인 순매수 강도	9/16일 이후 주가 등락률	백분위 점수
조선	-0.009	-10.2	83.3
디스플레이	-0.01	-6	75.9
기계	0.089	-1.6	74.1
코스닥	-0.021	-6.6	74.1
자동차	-0.048	-14.4	74.1
건강관리	-0.018	-4.4	70.4
소프트웨어	-0.06	-11.6	70.4
미디어, 교육	0.039	-2	70.4
호텔, 레저	0.384	1.9	64.9
통신서비스	0.002	0	61.1
소매(유통)	0.045	1.2	59.3

자료: Quant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 1. 이어지는 모멘텀 소강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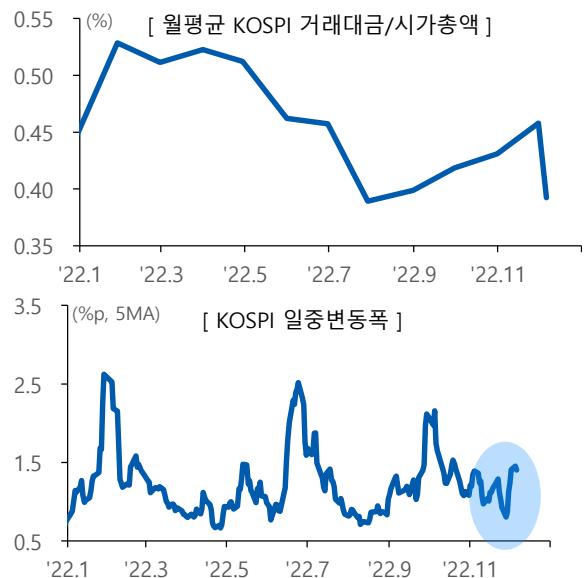
전일(12/6일) KOSPI 지수는 약 1.1% 하락한 2,393.2pt에 마감했다. 11/9일 2,400pt 대를 회복한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하향 이탈했다. 또다시 베어마켓 랠리의 종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난 시황에서도 언급했던 모멘텀 소강국면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한다. 적어도 물가와 달러의 피크아웃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적인 재료가 부재해 거래대금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증시는 장중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일중 변동폭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가치 상승)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12월 들어 KOSPI에 약 7,600억원의 순매도를 보이며 10~11월 2개월 합산 7.2조원의 순매수를 일부 되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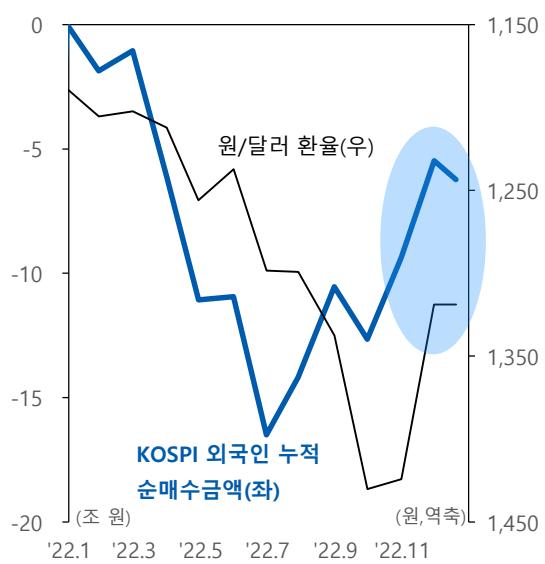
주가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12/13일)나 연준의 FOMC(12/13~14일)는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다. 방향성 없는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1] KOSPI 거래대금 다시 감소하고, 일중 변동폭은 9월 말 급락 이후 찾아들다 최근 재차 확대



자료: Quantwise,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12월 들어 쉬어가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과 KOSPI 외국인 순매수 동향



자료: Quantwise,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 2. 업종별 로테이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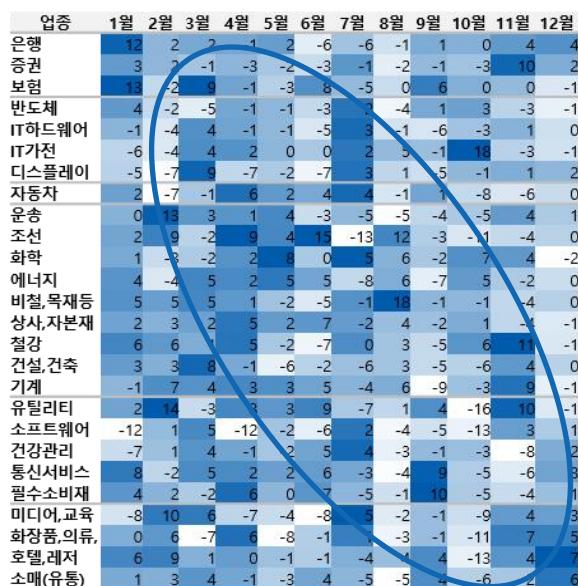
지수의 방향성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11월 후반 및 12월로 이어지는 현재, 증시 내 업종별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종별 성과의 차별화에 따라 이익실현과 저가매수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업종별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연초 금융을 시작으로 2차전지를 포함한 IT가전, 자동차, '태조이방원', 기계, 건설, 철강과 같은 경기민감 업종, 그리고 최근 호텔/레저나 화장품, 유통, 미디어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텔레저, 기계, IT가전, 유통, 미디어 등 업종은 12월 들어 4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KOSPI에 7,600억원 순매도를 보이는 와중에도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이다.

로테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가 자체도 중요한데, KOSPI 지수가 가장 최근 2,400pt 선을 하향 이탈한 것은 지난 9/16일이다. 당시와 비교해 KOSPI는 0.4% 오른 수준이지만, 업종별 성과 차이는 크다.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남아있고, 주가 부담은 덜한 업종들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차트3] 올해 업종별 KOSPI 지수 대비 퍼포먼스, 로테이션 현상으로 이어지는 모습(12/6일 기준)



자료: Quantwise,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외국인의 KOSPI 매도우위 흐름에도 순매수는 이어지고, 주가 부담은 덜한 업종들(12/6일 기준)

업종	12월 외인 순매수 강도	9/16일 이후 주가 등락률	백분위 점수
조선	-0.009	-10.2	83.3
디스플레이	-0.01	-6	75.9
기계	0.089	-1.6	74.1
코스닥	-0.021	-6.6	74.1
자동차	-0.048	-14.4	74.1
건강관리	-0.018	-4.4	70.4
소프트웨어	-0.06	-11.6	70.4
미디어,교육	0.039	-2	70.4
호텔,레저	0.384	1.9	64.9
통신서비스	0.002	0	61.1
소매(유통)	0.045	1.2	59.3
IT하드웨어	-0.09	-8.5	53.7
운송	-0.064	-2.4	53.7
은행	0.078	7.3	51.9
비철,목재등	-0.064	-2.1	50
화학	-0.023	1	48.2
IT가전	0.057	7.9	46.3
코스피	-0.039	0.4	46.3

자료: Quantwise,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